# 불성과 하나돼 슬기롭고 멋지게 살라

☞ 19면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병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려 하는데 저희 식구 중에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저 혼자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는 식구가 하나도 없고, 또 제가 종손이라서 집안의 어른들이 수술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공부한다고 식구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식구들이 편할 수 있도록 냥 수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식구들의 걱정은 대단했습니다. 가족들과 병원에 다니면서 검진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병의 원인도 모른다고 했고 종양을 제거하면 완전히 치유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또한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으니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겠노라고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 아픔 거부않고 수용

병의 원인도 모르고 완전한 치유의 보장도 안되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와 병원에 내 몸을 절대 맡길 수 없었고 만약 수술을 할 경우 잘못될 수도 있고 종양이 생길 때마다 수술을 해야 하고 때로는 호르몬 생성제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술하는 날로부터 평생 병원 신세를 지며 아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프면 아픈 데로 주인공의 나툼임을 믿고 받아들여 사는 날까지 짧고 굵게 살아야겠다며 병과 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날도 하루종일 머리가 아팠지만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그래 아파야 하는 것이니까 아픈 것이지." 하며 아픔을 받아들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자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거의 울다시피 잠에서 깼습니다. 비몽사몽간이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서 내 몸 안의 아픈 세포들을 봤는데 그 때 너무도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래, 이 법을 몰랐을 때는 단지 아프다는 것이 싫어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고 약을 써서 잊으려고 했고 짜증나는 마음도 냈었지만 이제는 둘 아님을 알게 되어 하나되고 싶구나." 하며 다가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그런 편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런 두통이 느껴지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인공 자리에 몰록 던져 놓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이 법을 모르고 이런 경계를 겪게 되었다면 그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 법을 만나서 흔들림 없이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일심으로 관하며 백마디의 말보다는 한 가지라도 행을 실천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아직 다가올 경계들이 많겠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물러섬이 없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법우 말마따나 그거를 그대로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생명들이 다 죽어. 그러면 아귀를 짓지 못해. 더 퍼지게 돼. 그것들도 살 량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너와 나와 둘 아니다 하면은 오히려 아예 없어지는 거지. 그게 둘이 아닌데 뭘. 참 큰일을 했는데 전부 해보다 보면은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어. 감사해.

질문2: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활하면서 조그만 거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가르쳐 주신 스님과 부모님 조상님들에 대한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원에 영탑공원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직 이 공부와 인연이 닿지 못해서 저라도 영탑에 조상님들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원을 성취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냈는데 조상님들도 함께 마음을 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탑재를 지내면서 부모님도 함께 한자리하시라고 마음을 지극하게 냈더니 다행히 아버님께서 함께 한자리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아직 이 도리와 인연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한자리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스님들께서 정성껏 재 지내시는 것을 보고 아버님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스님께 깊은 감사 올립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같이 공부하다가 인연을 저버리는 도반들이 있는데 인연없는 중생은 어쩔 수 없다 하셨지만 과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자꾸 불들면 오히려 도망을 가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둘이 아닌데 하고 결정을 지어놓고, 보이는 데서는 있는 듯 없는 듯하게 그냥 해버리면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알게 돼. 그 마음이 알게 돼서 점점점점 달라지고 결국은 같이 친밀하게 되지. 그게 말을 안 듣는 것도 친밀하질 못해서 그래. 그렇게 친밀하지는 못했잖아. 그러니까 인정이 많아서 블쌍한 생각 안된 생각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내면의 주인공하고 같이 둘 아니게끔 해야 그 사람의 껍데기가 들게 돼. 그래 건지려면 내면부터 건져야 거죽이 건져진다 이런 말이야. 또 금방 들으면 금방 건져질 수 있고. 참 착해요. 조상님의 탑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했다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조상들이 아니라 자기예요. 결국은 자기라고요.



그림 · 최주현

## 사람 건지려면 업식자리 그냥 끊고 주인공이 해결토록 놓고 맡기세요

## 하나돼야 살기 편해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라는 거를 다 놓고, 그렇다고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야. 아주 슬기롭고 멋지게 살라고. 사는 데 사는 그 자체 도리가 바로 내 과거 불성이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주 과거의 자기 동자도 싱긋이 웃으면서 잔뎅이 만지면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고 좋아진다고. 아주 가까운 것이야. 자기 불성은, 자기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진화해서 자기가 그 원소를 가지고 태어날 때 생명력이라는 거를 가지고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다시 바뀌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항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힌 친구야. 그건 친구이기 이전에 자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면 둘이 아니게 돼서 하나로, 모르면 항상 둘이 돼서 살지.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살기가 참 힘들어.

지금뿐이 아니야. 이걸 모르면 요 다음 생에도 그렇고 자유자재할 수 없어. 식구들도 돌봐 줄 수 없고, 어디 갇혀 있어도 꺼내 줄 수가 없고, 길에 다니다가도 차에 치어죽은 사람, 혼백이 갔다가 와 보니까 자기 육체가 없어서 거기 앉아서 딴 육체라도 오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건지고, 가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은 건져서 좋은 데로, 모르니까 가질 못하고, 눈이 멀었으니까, 새 집이나 쥐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 집으로 들어가게 하지. 그래서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 길에 오다 가다가도 그런 인연을 만난다면 정말 대덕이지.

사람은 항상 웃고 살아야 돼. 그리고 속이 웃지를 않으면 거죽으로 아무리 웃어도 속에 진티가 있어서 금방 찌푸리게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없이 선이 자리를 잡아야 돼. 악과 선이 없이 그냥 자리가 돼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그냥 스스로 사는 게 악이 되질 않고 선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나 했는데 자기가 보이지 않는데서 다 하는 거야.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 쪽 몸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 그래서 이 쪽도 좋게 하고 저 쪽도 좋게 하고 죽게 된 사람들 다 살려.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어디가 좀 못생겼으니까 뜯어 고쳐야겠다 이런다면 요 다음에 잘 생겨 가지고 나오게끔 생각을 하면 돼. 그냥 뭐든지 자기가 지금 살면서 부족했던 거를 요 다음 생애에 가지고 나와도 좋은데, 이 공부하고 나면은 그것도 저것도 그냥 다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니깐 뭐 그렇게 대단치가 않고, 하여튼 정말이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예전의 부설거사처럼 그렇게 선지식이 돼서 정말 어디가나 죽어서 걸음을 걸어가도 "아이구, 저 분 좀 붙들어야 내가 살겠다." 이러고 선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그러는 그런 영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때로는 열명도 좋고 스무명도 좋고 삼십명도 좋고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을 그 쪽 신도들이 다니니까 그런 거를 알게 되지. 그때 어느 골짜기의 문제들이, 이 공부 못하면은 죽어서도 고생이야. 죽어서도 더 갈 수도 없고 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차에 치어도 그냥 딴 데 가서 태어나면 될 거를 그거를 몰라서 그냥 거기 쭈구리고 앉아있어. 거짓말 아냐 이거.

## 나부터 알아야 불교

예전에 차에 치어서 죽는다고 그래. 그래서 거길 가 봤더니 정말 쭈구리고 애하고 어른하고 앉았어. 그래서 그거를 좀 환생시켜줬는데 그거 환생시켜주고 난 뒤는 아예 그런 소리가 없더라고. 그러니 모두 사람의 마음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하다 못해 생선을 하나 먹더라도 그 모습을 약으로 모두 먹게 하고 그 흔백을 화현을 시킨다면 우리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일이야.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묘법이야. 보살행이라고 하고. 보살행하는 거를 응신이라고 하지. 응해 주면은 응하면은 그냥 이루어지니깐 여북하면 응신이라고 그러잖아. 이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거를 다 배우려고 다니지만 나부터 배워야 돼. 모두 나부터 알아야 된다고.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외국사람들인데 전부 합장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합장할 줄을 모르잖아. 그런데 전부 합장들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악을 쓰고 야단들을 한다는데 조용하고,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안돼서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들어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강에 나가서 생선을 한 마리를 샀는데 생선이 울고 있는 거를 봤나 봐. 울고 있는 거를 보고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더라는 거지. 옆에 사람이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그 때에 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는 이 고기는 사람이 살다가 그렇게 고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방생을 했다고 좋다고 그 쪽 스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소리 들으면 고맙기도 하고 외국 사람인데도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퍼뜩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고생을 너무 안 해도 남이 고생하는 걸 몰라서 구석구석을 모르고, 고생을 너무 해서 찌들으면 좀 선선하고 좋은 거를 모를 거고, 좀 삐뚤어지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각을 잘해서 어렵든 어렵지 않든 생각을 똑바로 해서, 잘 살아도 모두 자기 것이 아니거든. 자기는 몸 하나 뿐이야. 그런데 인연에 따라서 덕으로서 이렇게 잘 사는 거지. 잘 산다고 해서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아주 우리 스님네들도 그렇고 열심히 해서, 잘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서 이 쪽에 맞춰서 잘 되게끔 돼. 그러니까 모두 자기를 믿어야 돼. 자기 원소라고 할까 자기 불성이라고 할까 자기 자불이라고 할까, 그거를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냥 진짜로 믿어야 돼. 자기가 지금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깐 과거 동자야. 지금 있는 자기는 물질적인 자기 모습이고, 그 모습이 없다면 과거의 생명력도 없어. 생명력이 에너지야 결국. 에너지 통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 에너지 통이 주장자가 돼. 주장자로 화해. 그래서 그 주장자가 조금만 스쳐도 그건 결정적인 법이 돼. 그러니깐 우습게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들 배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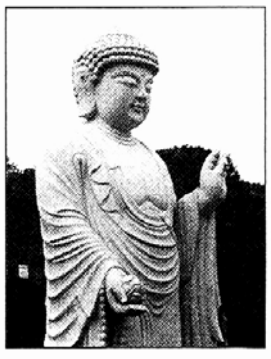
(청년법우들의 합창과 연극공연을 보시고)

스님: 여러분 잘 봤습니다. 잘 듣고 재미있게 웃었고요.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한 자리를 하면서도 모습은 헤어져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같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급하면 부르세요.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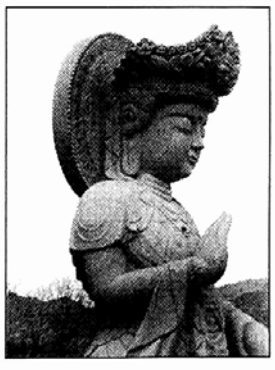
※위 법문은 2000년 12월 3일 전국연합 청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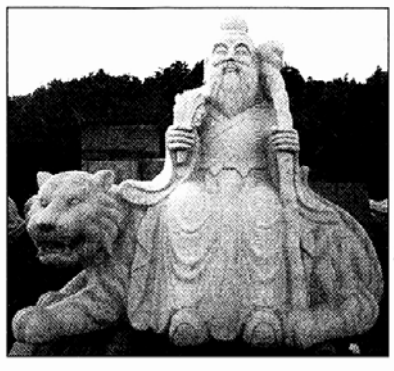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 현대불교신문사 지사 모집 】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각 지역의 체계적인 구독확장과 광고수주를 위해
21세기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할 창신하고 역량 있는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1. 지사지국모집 대상지역 (10개지역)

| 구 분 | 관 할 지 역 | 비 고 |
|---|---|---|
| 강원 1 | 강원북부 - 춘천/철원/양구/화천/홍천 일원 | 신 설 |
| 강원 2 | 강원남부 - 원주/정선/영월/평창 일원 | 신 설 |
| 경 기 | 경기남부 - 안산/화성/용인/안성 일원 | 신 설 |
| 충 북 | 충청북부 - 충주/제천/음성/진천/괴산 일원 | 신 설 |
| 충 남 | 서산/아산/당진/예산/청양 일원 | 신 설 |
| 경 북 | 문경/상주/예천 일원 | 신 설 |
| 경 남 | 산청/거창/함양/합천 일원 | 신 설 |
| 전 남 | 순천/보성/고흥/여천/광양 일원 | 신 설 |
| 전 북 | 전라북도 전지역 (전주) | 신 설 |
| 제 주 | 제주도 전지역 | 신 설 |

2. 지사의 사업활동 내용
- 해당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사업 전개.
- 본사 주최 수익 사업활동 진행.
- 지역 내 취재활동 지원 및 기사 제보.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기한 : 2001년 2월 17일(토)
- 제출방법: 우편(17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문의전화 : 02) 737-0090直 02) 737-8881代 팩스 : 02) 737-0697